

退溪先生 國譯年譜에 對하여

金 光 淳

<目 次>

- | | |
|------------|-----------------|
| 1. 序 言 | 4. 年譜 國譯者와 國譯年代 |
| 2. 發掘過程 | 5. 國譯年譜의 價值 |
| 3. 書誌學的 檢討 | 6. 結 言 |

1. 序 言

退溪先生年譜로서는 西厓本과 廣瀨本の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民族文化推進會에서 退溪先生年譜를 國譯한¹⁾ 이후 최근에 丁淳睦교수가 廣瀨本을 臺本으로 하여 退溪先生年譜를 國譯하여²⁾ 退溪學研究에 기여한 바 있다.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약 250여년 전에 退溪先生의 8世孫인 李世澤(1716~1777 A.D.)이 國譯한 退溪先生年譜이다. 이는 한문을 모르는 계층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한 귀중한 자료인데, 최근 筆者에 의해 발굴되었다.

그래서, 本稿는 그동안 退溪先生國譯年譜가 비장되어 오다가 發掘된 過程, 書誌學的 檢討, 國譯者와 國譯年代, 國譯年譜 價值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發掘過程

작년초에 권영철(효성여대 대학원장) 교수택을 방문했더니 筆者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소장직을 맡고 있음을 알고 退溪先生年譜 國譯本을 주시면서 檢討한 후 學界에 소개할 것을 권고수로부터 당부받았으나 일년에 가깝도록 筆者의 서재에 그대로 묻어 두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복사본이어서 原本의 出處와 作者 및 연대를 찾는 문제점부터 선결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권영철교수와 退溪門中の 여러 사람들³⁾에게 탐문한 결과 이 原本은 善山郡 海平面

1) 民族文化推進會, 國譯退溪集, 1968.

2) 丁淳睦, 退溪正傳 <立傳事實과 年譜>, 社團法人 國際退溪學會 慶尙北道支部, 1990.

3) 李東薰, 李東沐, 李源由, 李東日, 李秀忠氏 등의 助言이 컸다.

특히 李源由氏는 1991년 退溪先生 國譯年譜의 李晩香 跋文 末尾에 自作跋文을 添補하여 보관하고 있다.

海平里 239番地 崔相鶴氏(全州崔氏 海平派)가 所藏하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筆者는 張錫河(慶北産業大教授, 文化財專門委員)教授, 鄭羽洛(退溪研究所助敎)君과 함께 海平面 海平里的 崔相鶴氏 宅을 探訪했다. 마침 慶尙北道 公報室의 연락을 받고 崔相鶴氏와 崔相鶴氏의 長男인 崔烈氏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退溪先生 國譯年譜가 崔進士夫人으로부터 傳承되어온 과정에 대해 崔烈氏의 설명을 듣고 全州崔氏 海平派인 崔進士 후손들이 대대로 所藏해온 사실을 찾아냈다. 또한 崔烈氏는 退溪先生 國譯年譜 2冊과 「江陵秋月傳」 1冊을 내보이면서 그의 7代祖母께서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筆寫하셨고, 「江陵秋月傳」은 祖母께서 筆寫하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學界에 널리 소개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退溪先生 國譯年譜 2冊과 「江陵秋月傳」 1冊을 빌려와서 현재 筆者가 所藏中이다.

3. 書誌學的 檢討

이 책의 크기는 세로 32cm, 가로가 29cm이고, 총 222面 各行이 平均 18字로서 細筆로 비교적 정성들여 쓴 筆寫本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退溪先生 年譜로는 西厓本과 廣瀨本の 두 종류의 漢文本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退溪先生 國譯年譜는 西厓本을 대본으로 하여 國譯한 것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 책은 모두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권의 表題는 從으로 「退溪先生年譜 乾」, 속 表題는 左側에 從으로 「退溪先生年譜 卷之一」이라는 굵은 붓글씨로, 右側에 從으로 「甲辰流頭月念日造成于烟村」이라는 가느다란 붓글씨로 쓰여 있으며, 둘째 권의 表題는 「退溪先生年譜 坤」, 속 表題는 좌측에 從으로 「退溪先生年譜 卷之二」라는 굵은 붓글씨로, 右側에 從으로 「元龍流火月造于烟村」이라는 가느다란 붓글씨로 쓰여 있다.

이 책의 跋文은 退溪先生의 後孫인 通訓大夫 前行 司諫院 正言 李晩者가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李晩者는 純祖 25年(1825 A.D)에 나서 高宗 25年(1888 A.D)陰六月二十九일에 卒한 사람으로 退溪先生의 12世孫이다. 따라서 一卷은 甲辰流頭月 念日⁴⁾ 곧 憲宗 10年(1844 A.D) 陰六月 二十일에 烟村에서 崔進士夫人이 이 책을 筆寫한 것이 된다. 여기서 烟村이란 「太平烟火宜仁村」에서 나온 말로 安東郡 陶山面 宜村의 俗名이다. 二卷의 表題 「元龍流火月」은 甲辰年 陰七月의 뜻이니⁵⁾ 두권 모두 甲辰年 陰六月과 七月 곧 憲宗10年(1844 A.D) 陰六月과 七月에 걸쳐 崔進士夫人이 筆寫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실려 있는 年譜의 國譯者는 李晩者의 跋文을 검토해 보면 그의 從高祖인 參判公 李世澤(1716~1777 A.D)이 國譯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跋文을 옮겨보면

4) 流頭月은 六月, 念日은 二十日.

5) 元龍은 甲辰, 流火月은 七月(詩傳, 七月流火)

다음과 같다.

“세갑진하의 동고모 최진스부인이 친가의 오시니 석에 년세 오십이오 또 구세시라 전후의 창상을 지나시고 신관 근력이 엄엄 하시나 던행을 비와 선세를 추모 하며 불습을 듯즈와 석소를 늦기는 지라 불초무상한 거술 무훈 하시며 혈혈고고함을 슬허 하시 슬하의 슈삭을 두시고 경칙하시는 엄부와 갓 하시며 이훈하시는 조모의 다라미 업스시니 엇지 다했 불초를 권 이하신이리오 또 선군을 생각 하시리라 석에 칩을 매여 선조 퇴계선심년보를 벗기시니 이는 동고조 참판공의 번역하신비라 달이 굳근히 벗더니 계히 팔월 일의 피오려 가니 칩을 내여 보이시고 나문장의 세계를 벗기려 하시며 세계 조고만한 칩을 내여 주시니 우리 선군의 금부도소공의 쓰신비라 더욱 감읍하야 인하여 맞들고 도라와 써 올니니 조희 슈십장이 또 남거늘 선조언행록등의 가언 선행이 뜻알기 쉬운 것과 고종고 일통을 써 올니나니 모경의 두고 보시며 후세 자손에게 전하시면 천주만세의 내 우리 고모죽하되느 줄 누 모라라 일노써 스스로 위로하노라

계히십월원 종질 통훈대부 전함 스간원 평언 만기직비근서”⁶⁾

위의 기록으로 보면 退溪先生 國譯年譜는 李晩耆(1825~1888 A.D)의 從高祖인 參判公 李世澤(1716~1777 A.D)이 國譯한 것이고, 李晩耆의 從姑母인 崔進士夫人이 甲辰年(1844 A.D)陰六月과 七月에 걸쳐 烟村에서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筆寫했는데 李晩耆도 그때 간간히 도와드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癸亥年(1863 A.D) 陰八月에 李晩耆가 從姑母인 崔進士夫人을 뵈러 다시 가니 甲辰年(1844 A.D)에 筆寫한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보이면서 남은 장에 眞城李氏 世系를 筆寫하려 했다. 이것은 李晩耆의 生父인 禁府都事 李彙正(正祖5年生, 1781A.D~憲宗 4年卒, 1838A.D)이 쓴 것인지를 받들고 돌아와 써서 올리니 종이가 수십장 또 남거늘 「退溪先生言行錄」 中の 일부를 쓰고 거기다 「考終記」 한 통을 써 올리니 머리말에 두고 보시며 후세의 자손에게 전하시면 千秋萬世에 우리 姑母 죽하되느 줄 누가 모르리오라고 했다. 이 점으로 보아 年譜의 筆寫年代보다 이 跋文은 약 19年 뒤인 癸亥年(1863 A.D)에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 表題의 甲辰年이란 筆寫年代는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崔進士夫人이 筆寫한 年代를 의미한다.

위의 跋文에 의하면 이 책에 수록된 것 가운데 國譯年譜를 제외한 작품들은 모두 國譯年譜의 筆寫年代보다 後代의 것으로 筆寫添附된 것으로 보인다.

6) 本文 引用은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末尾에 수록되어 있는 李晩耆 跋文을 옮긴 것인데 띄어쓰기는 讀者들을 위해 筆者가 임의로 한 것이다.

7) 崔進士란 崔雲永이며 全州人이다. 字는 景錫, 初諱는 雲祚, 1788年(戊申)7月29일에 나서 增廣進士를 하고 1838年(戊戌)에 卒했다. 配는 眞城李氏로 1867年(丁卯)陰六月七日에 卒했는데 縣監 秉淳의 딸이다.(全州崔氏 海平派譜 參照). 崔進士夫人은 59세에 친가에 와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筆寫하였고, 그의 종질 李晩耆(초산영감)가 간혹 대필하였다고 한다. 또한 崔進士夫人은 親家에 대해 제택의 대청중건과 先考妣位 묘소에 안석도 했다고 칭송하는 이야기 등이 口傳되고 있다.(退溪先生年譜 李源由 跋文參照)

이 책의 내용을 一瞥해 보면, 一卷 전부와 二卷의 158面 2行까지는 李世澤(1716~1777A.D)이 西厓本 「退溪先生年譜」를 國譯한 것을 李晩者의 從姑母 崔進士夫人⁷⁾이 筆寫한 것인데 간간히 李晩者가 도와서 完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二卷의 158面 3行부터 167面까지는 「墓諱銘」을 國譯한 것이고, 168面은 奇大升이 쓴 「墓誌」를 國譯한 것이다. 169面에서 179面까지는 「陶山記」가 기록되어 있고, 180面에서 188面까지는 李晩者의 父인 禁府都事 李彙正이 「眞城李氏世系」를 國譯한 것을 수록하였으며, 189面에서 216面 9行까지는 「退溪先生言行錄」의 일부가 國譯되어 있고, 216面 10行에서 220面까지는 退溪先生의 「考終記」가 國譯되어 있고, 221面에서 222面까지는 李晩者의 跋文이 첨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退溪先生年譜를 처음 國譯한 李世澤의 退溪先生 國譯年譜이다. 이것은 跋文을 쓴 李晩者의 從高祖인 李世澤이 西厓本 退溪先生年譜를 대본으로 하여 國譯한 것을 李晩者의 從姑母인 崔進士夫人이 그대로 筆寫한 것이고 李晩者도 간간히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國譯本은 李世澤이 國譯한 것을 그대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先祖가 쓴 글을 옮길 때는 加筆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常例이기 때문이다. 또 李晩者가 쓴 跋文은 19세기 당시의 철자법에 충실하고 있는데 비해 退溪先生 國譯年譜의 표기법은 1700年代 中半 이전의 표기법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서 國語學的인 측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 學界에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4. 國譯者和 國譯年代

退溪先生 年譜의 國譯者는 이 책의 跋文을 쓴 李晩者의 기록대로 그의 從高祖인 李世澤임을 짐작할 수 있다.

李世澤은 肅宗42年(1716 A.D)에 出生하여 正祖元年(1777 A.D)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조선조의 文臣이며 字는 孟潤, 號는 釣隱, 본관은 眞寶(眞城), 退溪 李滉先生의 8世孫이다. 監役 守恒의 아들로 태어나 進士試를 거쳐 英祖29年(1753 A.D) 庭試文科에 乙科로 급제하고 檢閱에 이어 校理에 올랐다. 英祖31年(1755 A.D)에 李滉의 著書 「聖賢道學淵源」을 왕에게 바쳐 貂帽를 하사받았고, 英祖38年(1762 A.D)에 천거를 받아 右承旨에 특진하고, 이듬해는 大司諫이 되었다. 1768年 英祖44年에 仁同府使로 있을 때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죄로 丹陽에 流配되었다가 鍾城으로 移配되었다. 英祖46年(1770 A.D)에 풀려나와 大司諫이 되고, 英祖48年(1772 A.D)에는 大司憲에 이르렀다. 그의 著書로는 「釣隱遺稿」와

「清涼誌」등이 있다.⁸⁾

前述한 바와 같이 國譯者인 李世澤이 肅宗42年(1716 A.D)에 나서 英祖를 거쳐 正祖元年(1777 A.D)에卒한 것으로 보아 退溪先生 國譯年譜의 國譯時期는 조선조 英祖代로서 1700年代 中半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李世澤이 처음 쓴 國譯本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李世澤이 번역한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崔進士夫人이 筆寫하다가 李晩耆가 도왔다는 점으로 보면 이번에 발굴된 退溪先生 國譯年譜는 原本 그대로의 表記일 것⁹⁾이라 생각된다.

5. 國譯年譜의 價値

退溪先生 國譯年譜의 國譯 時期는 지금부터 약 250여년 전으로 추측된다. 退溪先生 國譯年譜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보아 사회의식적인 측면에서나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조선시대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양반문화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으로부터 사정은 달라진다. 사대부 양반들의 세력이 자기 문화를 나름대로 유지시키고 있었지만 그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성격을 띤 실학사상과 서민문학이 형성되었다. 즉 새로운 사회계층의 활동으로 문학의 양상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특히 英祖代부터는 실학사상이 일어나 近代化의 移行이 활발히 전개되어 한문문학에서 국문문학으로 전환되던 한국문학의 일대 전환기이다. 그 실례로 英祖代에 국문소설이 쏟아져 나왔고, 戒女歌, 서민가사, 사설시조, 내간체 등이 우후죽순처럼 창작되어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였다. 退溪先生 國譯年譜도 이러한 文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서민계층문화가 사대부 양반계층문화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退溪先生 年譜의 國譯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식적 측면에서 서민의식의 상승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글 해독계층인 양반부녀자들과 서민들이 自我를 각성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대부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退溪思想을 배우려 한 사실을 退溪先生 國譯年譜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물론 年譜를 읽는다는 것은 그 배움의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사대부 양반계층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퇴계사상을 수용하려는 의식이 한글 해독자 계층에서도 일어났

8) 韓國人名大辭典.

朝鮮王朝實錄 英祖條

9) 先祖의 글을 옮긴 때는 가감하거나 윤색하지 않은 것이 예의이며 관례이다.

다¹⁰⁾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한글 해독자의 의식과 한학자들이 퇴계사상을 전파시키겠다는 생각이 맞물려 退溪先生 國譯年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 보면 이 시기에 이미 퇴계사상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문문화를 누리고 있던 사대부 양반계층에서는 한문으로 된 年譜를 숙독했고, 또 양반 부녀자나 서민층, 특히 한글을 주로 사용하던 계층에서는 한자로 된 연보를 국역하여 읽고 익히며 퇴계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볼 때 退溪先生 國譯年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國語學的인 면에서도 자료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 국어 표기법상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ㅅ, ㅆ, ㅂ, ㅃ, ㅈ, ㅉ 등 語頭에 合用並書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후주석고 ㅎ여, 거짓꾸 미미, 식재미리씨, 또, 쫓을어더, 정으로씨, 쫓을 ㅅ느지라, 사름을쓰면, 사약을빠가지고, 연고로씨, 텃풀이싸여나, 썰니 ㅎ고져, 짝이드무도다 등인데 특히 「ㅅ」系 合用並書가 많이 쓰이고 있다. 語頭合用並書는 17세기에 오면 ㅅ, ㅆ 등이 소멸의 운명을 견게 되고, ㅅ과 ㅃ, ㅂ과 ㅆ의 혼동이 일어난다. 重刊杜詩諺解(1632 A.D)에 뜰(意)이 뜰으로 나타난 예를 제외하면 이 혼동은 1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17세기에 싹튼 이 혼동은 18세기에 이르러 극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語頭合用並書의 표기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둘째, 모음, 더, ㅅ, ㅃ 등의 「·」字가 1음절과 2음절에서 그대로 表記되고 있다. 모음 「·」字는 16세기에 제1단계의 消失(제2음절 이하에서의 消失)을 경험했고, 18세기 후반에 와서 제2단계의 消失(語頭音節에서의 消失)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字가 1음절과 2음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물, 풀, ㅃ, 프 등의 원순모음화가 안된 古形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원순모음화 현상의 시작은 17세기 초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17世紀 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안된 표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네째, 의더 ㅎ여, 잇디아나 ㅎ며, 엇디, 삼디아니티아니 ㅎ야 등 구개음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古形 그대로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口蓋音化現象은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 책에서는 구개음화가 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本文 表記法상의 특징으로 쉬, 선세는, ㅃ 등의 복모음 표기 등이 나타나고 있어 1세기 국어의 이중모음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10) 崔烈(全州崔氏 海平派)氏의 구두증언에 의하면 退溪先生 國譯年譜는 안동군 도산면 眞城李氏 부녀자들에게 읽혔음은 물론이고, 善山郡 海平에 世居하는 全州崔氏 海平派 부녀자들도 眞城李氏 집안에서 시집은 崔進士夫人의 영향으로 널리 읽혔고, 또한 崔進士夫人의 딸들이 왜관 매원의 廣州李氏 합천 尹氏 등으로 出嫁하면서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筆寫하여 戒女歌처럼 읽고 익혔다고 한다.

5. 結 言

이상으로 退溪先生 國譯年譜의 發掘過程, 書誌學的 檢討, 年譜國譯者와 國譯年代, 國譯年譜의 價值 등에 대하여 略述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장되어온 과정과 국역자 및 국역연대, 그리고 그간의 유통범위와 국역본의 가치가 至大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退溪先生 國譯年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思料되어 本論文集 末尾에 退溪先生 國譯年譜를 縮約하여 收錄하니 退溪思想研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